

교회 목표

신앙의 예배
천국입문 양식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중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오늘(15일)은 성령강림주일

“너희가 회개하여 ...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행 1:4,5)하셨던 성령이 임재 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행 2:1-4).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원래 구약의 칠칠절 절기였던 이날에 성령이 강림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오순절은 초실절 다음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며, 7주간의 곡물 추수 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구약의 칠칠절 또는 베히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데서 유래한 이름입니다(레 23:15-17).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전체 구약사의 시작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최초의 인간을 위해 구속의 법을 사랑으로 세워주셨지만 그 구약사의 궁극적인 실체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수난이 있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은 죄의 신분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과 구약사의 성취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약의 계시가 선민인 이스라엘을 통해 진행되었고(히 10:1)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수난을 통해 구약사를 성취하셨습니까(로 10:4).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회고 하고 있는 자에게는 구약사의 최종 실현인 천국을 세상 끝날 실현시킬 실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까(고전 11:25).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참 지혜(고전 2:7)의 비밀을 땅 끝까지(행 1:8) 나아가 전하는 일입니다.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고전 2:10)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행 2:38). 우리가 진실로 회개할 때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중언(눅 24:48)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금주 수요일(18일) 교회주변 총력전도의 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막 1:38)의 예수님처럼 전도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특별히 금주 수요일(18일)에 교회주변 전도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딤후 4:5).

유치부, 에바다부 예배실 변경

유치부는 제1교육관 207호, 에바다부는 제2교육관 1층으로

제1교육관에는 주로 1교육원회 소속 부서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치부만 제2교육관에 있었는데 이번엔 교회는 효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유치부 예배실을 제1교육관 207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어린 천국인물들의 모습을 제1교육관에 가면 한 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2교육관 1층으로 예배실을 변경한 에바다부도 인근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방과 더불어서 더욱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더욱 넓어진 독립공간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성경공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확에 관심 있는 성도들도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골 3:16)의 말씀처럼 이번 예배실 변경을 통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유치부와 에바다부가 되도록 전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부실



에바다부실

성령 속의 예수 그리스도(5)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인류의 구속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베새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은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요 5:30)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을 보지 못하던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하는 자에게는 구약사의 최종 실현인 천국을 세상 끝날 실현시킬 실 것을 골자로 하는 새 언약을 주셨습니까(고전 11:25).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뱀종류로 인한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감당할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드러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지만(창 3:7) 그것으로는 그들

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고 죽어야 한다는 ‘대속의 원리’를 보여 주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온 땅에 번성하게 되니 시작했지만 극도의 타락으로 결국 홍수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습니다(창 6-10장). 창세기 12장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구원의 복을 얻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창 12:1-3). 이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로써 인류를 적아 가운데서 구원하시교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이삭과 야곱에게 계승하여 추장 시대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의 국가로 확립되는데에 2 백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왕정시대에는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와 왕위를 약속하셨습니까(삼하 7:12-17).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이 땅의 어떠한 왕국도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후,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메시아의 탄생과 통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한 예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선재하심부터 시작하여 성육신, 기쁨을 받으실,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현재의 대제사장의 직분, 그리고 미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상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은 이사야서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지서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며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집중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비밀(고전 2:7)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며, 성경 속에 담겨있는 참 진리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십자가로 풍성해 될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 20:31).

(정현민 목사)

REMEMBER THE DIFFERENCE

(11)Therefore remember, that formerly you, the Gentiles in the flesh, who are called “Uncircumcision” by the so-called “Circumcision,” [which is] performed in the flesh by human hands (12)[remember] that you were at that tim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and strangers to the covenants of promise, having no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Ephesians 2:11&12)

Last Sunday we celebrated Pentecost in remembrance of the Holy Spirit forming the Christian church by coming and living in Christian hearts. His arrival started a new way of life for believers that cannot even compare to the former life. Many Christians fail to appreciate the vast difference because they forget how far away they were from God before they came to faith. Today's Bible verses begin by asking us to remember the disparity between our past and our current position in the body of Christ, so that we can value with gratitude God's amazing grace.

Before Christ, we were Gentiles in the flesh, called “Uncircumcision” by the so-called “Circumcision”(v. 11). The “Circumcision” people were Jews, called by God to be His children (see Dt. 10:12-11:32). They lived under God's covenant, and we did not. God spoke to Abraham and his descendants, not us. As such, the Jewish nation was a barricade between God and us. Jesus told the Samaritan woman, “You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Jn. 4:22). God choose the Jewish nation to glorify and proclaim His name, but they failed to follow His ways. Their mission to teach us about God (because we had no other access to Him but through them) was unsuccessful, and their disobedience led to a new covenant that erased all prior laws and restrictions. God eliminated the small surgery of circumcision required to bring Israel into His fold through the death of Jesus on the cross. Jesus Christ's death and resurrection established the new and only way to become God's child.

Before faith, we were separate from Christ. We were really, really far from God. After becoming a believer, God blessed us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in Christ”(Eph. 1:3). When we did not have Jesus, we walked according to the ways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of the spirit that is now working in the sons of disobedience (see Eph. 2:2). By nature, we were children of wrath, living in the lusts of our flesh, indulging the desires of the flesh and of the mind. Now, knowing Jesus, nothing can separate us from Him. Tribulation, distress, persecution, famine, nakedness, peril, or sword cannot disconnect us from the love of Jesus (see Rm. 8:35). We overwhelmingly conquer all things through the love of God, which is in Christ Jesus our Lord.

Before Christ, we were excluded from the commonwealth of Israel. Israel, as God's children, received His blessing and protection. They lived under His covenant, which gave them everything they needed. God provided Moses, Elijah, David, and all the prophets for their benefit. Psalm 147:19-20 says, “He declares His words to Jacob, His statutes and His ordinances to Israel. He has not dealt thus with any nation; and as for His ordinances, they have not known them. Praise the Lord!” God gave Israel special treatment. Amos 3:2

says, “You only have I chosen among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therefore I will punish you for all your iniquities.” God displays great care and love for His children. After we came to Christ, we became included in the commonwealth of God's children. Moreover, we received His Holy Spirit to guide and direct us in all things.

Before faith, we were strangers to God's covenant. We did not have a true friend, or God's promise. Israel was a friend to Jehovah. They had great privileges and blessings. They were God's children and He was their Father God. Abraham, Isaac, Jacob, Moses, and David were God's friends. Psalm 25:14 says, “The secret of the Lord is for those who fear Him, and He will make them know His covenant.” The Jewish people broke their covenant with God. Matthew 23:15 tells us, “Woe 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because you travel around on sea and land to make one proselyte; and when he becomes one, you make him twice as much a son of hell as yourselves.” After faith, we must not disobey God and become like the Israelites, but must faithfully acknowledge His grace and love.

Before Christ, we had no hope. If you become a Christian, you receive God's promise. If you do not become a Christian, then you have no promise or hope because you do not know the way of salvation. “I pray that the eyes of your heart may be enlightened, so that you will know what is the hope of His calling, what are the riches of the glory of His inheritance in the saints”(Eph. 1:18). Christians have spiritual insight, and unbelievers are blinded by the darkness of the world, lost in sin.

Before faith, we were without God in the world. We did not have any knowledge of God, thus we were without holiness and righteousness. We were without peace, joy, and salvation. The only thing we had were the gods of money and vanity. Our lords were the lust of material things and the greed for selfish desires (see 1 Cor. 8:5). Now that we have Jesus, we know how to live differently. We are holy and blameless before God, “He predestined us to adoption as sons through Jesus Christ to Himself, according to the kind intention of His will”(Eph. 1:4-5).

My dear friends, I hope you can see the difference between your past position and present position. You should be able to see how terrible you were, and truly appreciate God's wonderful grace in Jesus Christ and wonderful gift of the Holy Spirit. I hope you are a true believer, counted as one of God's children. Please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through the Holy Spirit. You will receive eternal spiritual blessings of hope, joy, peace, righteousness, and salvation. You are so blessed! If you really understand the difference, please stop complaining and grumbling over temporary circumstances, repent and appreciate your position as a child of God. 卐

그 차이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 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12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엡 2:11,12)



김성완 목사

지난 주는 성령강림절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믿는 자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거하시므로 초대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모두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믿는 자로 하여금 이전의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달라진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기 전에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의 과거 모습이 어땠는지, 또 그리스도의 몸께 속하게 된 지금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차이점에 대해 기억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고 참으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소위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았습시다(11절). '할례당'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신인 유대민족을 말합니다(신 10:12-13,22).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언약의 대상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지 우리는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선민 유대민족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바타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언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니라"(요 4:22).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택하신 것은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파해야 할 그들이 유대인을 통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을 없었습니다. 그 사명을 제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대민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이전의 율법과 계약들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를 무효화하시고,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롭고 유일한 길을 제시했습니다.

진노 받을 사람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이후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엡 1:3)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좇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엡 2:2).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을 탐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된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든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롬 8:35).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버려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언약 밖의 사람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들이 믿고요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모세, 아사라, 다윗,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시편 147편 19,20절을 보십시오. "저가 그 말씀을 아람에게 보이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아무 나라에게도 이같이 행지 아니하였나니 저들은 그 규례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례무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은 말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더불어 우리는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친구도,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아람)을 친구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위대한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와 다윗은 모두 하나님의 베풀어 칭함을 받았습니다. 시편 25편 14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와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음이어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다." 그런데 슬프게도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은 지적합니다. "와 있 올편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극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만일 여러 분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갔다면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마십시오.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이 없게 행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신실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믿기를 거부하면, 약속도 희망도 사라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베소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믿는 자들에게는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은 세상의 어두움으로 가려져 있어서 금방 저 가운데 빠지고 맙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으니 당연히 거룩함도 의로움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평강과 기쁨과 구원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돈과 허영의 신들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숭배하는 신들은 물질적인 탐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탐욕이었습니다(고전 8:5).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라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라 예수 그리스도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였으니"(엡 1:4-5).

그 차이를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의 신분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과거에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그의 놀라운 신실한 성령님에 대해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저의 소망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자가 되어 하나님 자녀의 한 사람으로 계수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좇으십시오. 그러면 소망, 기쁨, 평강, 의로움,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속한 신령한 은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이 지위를 아신다면 잠깐 지나갈 환경으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장로 칼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3교구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빌 1:27)



이종석 (3교구장)

3교구는 도곡동, 대치동, 역삼동 일부지역으로 7개 지역에 31개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교구 식구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전하는 일에 전심하고 있습니다(고후 13:4). 2005년 3교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자”(빌 1:27 참조)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2005년 신년 예배 시에 위임목사님이 설교에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전 교구 식구들이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딤후 2:21)라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성령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교구는 교회 목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첫째 신령한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 하겠고, 둘째 국내를 비롯한 땅 끝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드려야 하며,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남성구역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지고 있는 남성구역의 모습을 보며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통신을 통해서 부처런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3)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데 전심하고 있으며, 수요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3교구는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한 7개 지역의 팀장과 팀원은 이미 다 구성되었고, 영성훈련과 언어훈련에도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려는 믿음으로 뜨거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선교 못지않게 민족 복음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주변 전도에도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구의 새가족부는 교구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힘써 보살피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바로 우리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보살피는 데에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3교구 식구들은 “바리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다”(삼 3:17-18)라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생활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3교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주변전도

새로운 활력으로 진행되는 교회주변전도

전도회 별로 월 2회 이상 전도, 이미 교회 등록한 사람 30여 명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 5:24). 2005년도를 시작하면서 전도원회가 금년의 전도목표를 전 교인이 1년 안에 1인이 1명 이상 전도하여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과 그 실천 사항으로 126개 담녀 전도회가 전도활동에 전념함으로 <전도하는 전도회>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미 2개월여를 총력하여 집중하고 있다.

전도활동의 장으로 우선 교회주변을 전도

하는 목표로 하여 126개 담녀전도회가 교회주변(교회에서 도보로 30분 이내의 지역)의 전도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교회주변전도는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회 주변의 주민(주택과 업소)들이 최소한의 복음 메시지를 꼭 들도록 하자는 것이 1차 목표이다. 그래서 각 교구, 각 전도회, 각 전도회원들이 교회주변의 집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할당하여 각자의 책임 맡은 집을 1년 내내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축호전도를 실시하고 있다. 온 전도회원들은 지속적인 기도와 끊임없는 방문을 통하여 주민들을 만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각 전도회는 자체 계획을 세우고 1개월에 2회 이상을 전도하는 날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전 교회의 일지된 마음과 힘을 합하기 위하여 매월 총력 주변전도의 날에는 평균 1300여 명이 참여하여 온 교회주변이 충현 교우들의 전도의 발걸음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가득차고 있다. 지난 2개월 동안의 전도 결과 30여 명이 교회에 등록하였다.

도시에서의 축호전도는 각 집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기에 매우 힘들어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찾아가서 주민을 꼭 만나 복음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열정으로 하나가 되어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전도에 임하고 있다. 여전도회는 주로 수요1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 주로 토요일 오후에 모여 전도하고 있다.

교회나 각 개인에게 우리가 그동안 집중하여 온 진정한 예수 십자가 복음이 이제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일들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매우 급요임이다. 선교보고와 선교 파송, 또한 실제적인 전도를 통하여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성도들의 그 기쁨, 그 감사, 그 환희를 우리 모두가 누려 보는 율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골 4:3).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천교 사역을 통해 제가 죄인임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사역자가 늦게 나타나 주기를 은근히 바라기도 했습니다. 사역자로 이동할 때마다. 찬양을 했는데, 하루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찬양을 그만 하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런 것쯤 아무 것도 아니지.' '난 정말 아무 것도 아니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를 악물고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인도와 주마듯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 정말 못된 사람입니다. 애써 의식해야 겨우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내 멋대로 살기를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개입해주시지 않았다면 전 아마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거나 혹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이 없어서 자살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못나고 추한,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내 개에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신지 난 알 수 없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행할 것 같은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내.' 고집 세고, 상처 많던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 중의 이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떠 땀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떠 땀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8).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따르겠다고 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왔던 제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를 십자가의 길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기가 막혀서 남몰래 울었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내 삶에 개입해 주신 하나님께서 사역자의 영혼들의 삶에도 개입해 주시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있는 힘을 다해 십자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정우 (청년1부)

예수님 믿으세요

학교에서 사역하기 위해 통역과 문헌기사와 총무가 그곳 책임자에게 우리의 의사를 표시하니 거의 모든 학교가 전도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었다. 아이들이 익히도록 준비해간 찬송가를 몇 번씩 반복하며 부르고 그곳 선생님이 부탁하여 전도지를 읽게 하고 아이들에게 대표로 직접 읽게 하는 등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였다.

특히 가슴에 깊이 새겨진 것은 어느 지역에서 한 노방전도였다. 그곳에서는 우리가 한 두명에게 전도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지를 읽어주기도 하고, 읽게 하기도 했다. 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젊은이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영어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나고 문기에 영어로 전도지를 한번 더 읽어 주었다. 그는 내게 'How?' 라고 질문을 했다. 그의 물음에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대답을 했다. 그는 더 깊은 대화를 원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안타까웠다. 기도할 뿐이었다. 나는 그와 헤어지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남하고, 믿음이 자라도록 이끌어줄 지도자들이 많아지길 기도했다.

이흥표 (집사, 15교구)

★ 이번 주에 출범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5월 17일(화) - 5월 26일(목)	5교구 7지역	전종일	5월 17일(화) - 5월 26일(목)	10교구 2지역	정영환
5월 17일(화) - 5월 26일(목)	9교구 5지역	김화강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5월 2일(화) - 5월 9일(월)	3교구 7지역	문규국	5월 3일(화) - 5월 12일(목)	18교구 7지역	유성태
5월 2일(화) - 5월 10일(화)	7교구 6지역	조종국	5월 4일(수) - 5월 13일(목)	1교구 9지역	이승계
5월 2일(화) - 5월 12일(목)	18교구 6지역	김원호	5월 4일(수) - 5월 13일(목)	12교구 6지역	이성섭
5월 3일(화) - 5월 12일(목)	2교구 8지역	이정현			

선교일기

4월 11일(월)

3개월 가까이 영성훈련, 언어훈련, 찬양, 기도 등의 강행군 속에서 서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자 그 과정을 견디고, 드디어 비행기에 올랐을 때의 감격을 무려라 표현할 수 있을지! 기내에서부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겠다."라는 다짐으로 몇 번 얼굴을 마주친 스튜어디스에게 미묘한 영어지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주었다. 이 때부터 영 동로와 떨어지던 주기도문을 읽는 모습을 보니 감사 찬송이 절로 나왔다. 경유지 대합실에서는 발마사지실에서 근무하는 아가씨들과 같이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복음을 전했다. 아직도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비행기 내에서 전도한 것이기에 구름 속에서 전도한 듯 묘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12일(화)

이 나라에는 12일부터 16일까지 물 축제 기간이다. 이 물 축제에는 물로 더러움을 씻고 새해를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우리들은 이 때부터 전도가 안될까 걱정이 됐지만 물을 막을 각오를 하고 복음을 전하러 나갔다. 그곳에서 적막이를 안거나, 엮고 있는 젊은 여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들에게 전도하고 기도하여 흘린 감격의 눈물을 잊을 수 없다.

13일(수)

오전 사역 때 시장에서 사역하면서 물 축제에 참여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웃고 기도하고 찬송가를 부른 것이 기억난다. 주소를 물어보는 어떤 아이에게 e-mail 주소를 적어주기도 하였다. 마을 우물가에서 전도할 때 한 분이 우리에게 양파를 바구니째 주려고 해서 달랠했던 순간도 있었다. 손님을 접대하려는 그들의 순수함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도했다.

14일(목)

강가 마을에서 사역하던 중 현지 그리스도인 처녀를 만났다. 우리는 그 처녀를 통해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었다. 주님의 예비하심에 감사했다. 이 예쁜 처녀와 함께 영어로 기도하다가 누군가의 물세례로 감격 놀라, 다같이 웃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진다.

15일(금)

오전 사역 중 외딴 동네에서 만난 젊은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언니, 동생하며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하며 울기도 했다. 오후 사역 중에는 스님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16일(토)

어느 마을에서 100여 명을 모아 놓고 부흥회를 열었다. 그리고 오늘은 수소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찬송을 가르치고 함께 불렀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역지를 옮긴 생애를 새벽을 잊을 수 없었다.

17일(주일)

오늘은 이교의 설날이다. 우연히 한 팀원이 자신의 고교 선배이자 7촌 이모인 분을 만났다. 선교사의 사명을 띠고 온 이 땅에서 지인과 감격의 재회를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린다. 이번 사역의 많은 일들 가운데 설명의 역사를 체험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렐루야!

(13교구 6지역팀)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5월 9일(월) - 5월 16일(월)	9교구 4지역	정재모	5월 12일(화) - 5월 20일(목)	3교구 3지역	허민선
5월 10일(화) - 5월 18일(수)	3교구 6지역	정창수	5월 12일(화) - 5월 21일(목)	8교구 7지역	전성욱
5월 10일(화) - 5월 19일(목)	2교구 5지역	정은환	5월 12일(화) - 6월 13일(목)	대학부	오상현
5월 10일(화) - 5월 19일(목)	10교구 4지역	조영철	5월 13일(목) - 5월 21일(목)	16교구 3지역	이상범
5월 11일(수) - 5월 18일(수)	14교구 4지역	김수연	5월 13일(목) - 5월 21일(목)	16교구 추가	구창희

주님의 나라 확장에 쓰임받을 너를 기대하며 그리고 기도하며 ...

사랑하는 딸 은재야!

모두가 월드컵 4강의 여운에 들떠 있었던 해 여름이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가는구나. 아빠, 엄마가 결혼한지 4년간에 많은 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만나고, 또 다시 병원에 한참을 있다가 나오는 바람에 아빠 엄마에게 시작부터 '자식은 내 소꿉친구 아남을, 또한 부모가 자식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자녀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을 올바로 키워내라고 말하신 존재임'을 깨닫게 해 준 너 없었기에 아빠, 엄마가 너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아빠가 결혼 전에 주일학교 성경공부 시절 선생님이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 세상일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집에 부모님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다' 라는 얘기를 듣고 과연 '나는 네 자녀가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했었다. 그러나 아처럼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시고 이루어가심을 알기에 결혼을 하고 널 만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딸 은재야!

아빠와 엄마는 너를 바라보며 매일 이렇게 기도한다. 은재가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보살피고 도와주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항상 인식하며 살도록... 은재가 어진 성품을 갖고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무엇보다 일찍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살며 그렇게 살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가슴 벅찬 자부심과 감사함으로 담담히 그 사실을 받아들이 수 있도록... 너를 통해 너의 주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여 지도록... 그러기 위해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항상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의 자세로 사는 은재가 되기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갈 미래의 네 모습을 베킨 가슴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모습의 본을 보이는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변성주 (집사, 10교구)

*은재는 유아부에 열심히 출석하고 있는 4살배기 아이입니다.

어느 금요일 찬양집회 시간이었다. 집회가 거의 끝날 무렵,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03절을 드릴 때였다. 내가 앉은 5교구에서는 성가대 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대학생들이 잘 보였는데 무식고 찬양대석을 바라 본 순간, 한 청년의 모습이 유난스럽게 눈에 띄었다. 청년이 온 몸으로 일기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본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찬양을 받으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 느낌은 그때까지 적잖이 찬양을 하며 버티 마시거만 내 영혼을 흔들 어놓았다.

아! 그런데 그 아름다운 청년이 바로 그가 어닌가? 1995년에 중등 2부에서 내 반이었던 그 개구쟁이 소년은 어닌가? 찬양대에게 붙나자마자 나는 무대 위의 명배우를 만나러 가듯 몸비는 성도들 사이를 비치고 찬양대석으로 갔다. 그리고 내가 그를 알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큰 소리로 그를 불렀다. 그와 나는 굳게 잡은 손을 흔들며 무슨 중대한 결연이라도 하게 됐을 시간 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십 년 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만남의 기쁨을 맛보고 있었다. 그것은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뢰 믿음의 친구관계였다. 그렇게 승오와 나는 다시 만났다.

사랑하는 승호야!

과거는 그 자체로서도 훌륭 가치가 있지만 현재와 연결관상에 있을 때에 더욱 아름답다. 만약 우리의 만남이 1995년 중등 2부에서의 만남으로만 끝났다 해도 그것은 충분히 아름답다. 그러나 십 년이 흐른 후, 너는 너를 다시 만나고 이제 그 만남은 필연적으로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 더욱 10년 전의 중등 2부의 기억은 가치가 있다. 승호야!

고백하는데 그날 너를 만나고 깨달은 것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을 볼 때는 그의 미래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십 년 전 너는 2005년의 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 했다. 1995년 그때, 너는 네게는 바치기만 한 중학교 2학년 익살꾼 소년이었다. 네에게는 너를 분반공부의 목표에 도달시키는 일이 중요했고 너를 교회에 잘 참석시키는 일 역시 만만찮은 과제였다. 그때 오늘의 든든한 너의 모습을 미루어 볼 수 있었더라면 나는 보다 깊이 1995년의 그 순간을 누렸겠지?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러지 못 한 것이 아쉬웠고 한편 부끄럽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본다는 데 그때, 오호의 너를 보지 못 했던 것이 미안하구나.

그래서 승호야!

이제 너는 옛날의 너를 보지 않는다. 1995년에, 2005년에 너를 보지 못 한 아쉬움을 더 이상은 범하지 않기 위해 이제 2015년의 너를 본다. 너는 지금도 이미 생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지만 앞으로 너는 더욱 빛나는 주의 용사가 될 것을 믿는다. 이 바람은 주 안에서 생생된 것이기에 확고된 소망이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다.

승호! 스승으로서의 최고의 기쁨은 '청춘이람'의 실현이다. 너는 이미 스승보다 더 온전한 제자다. 십년 전 중등 2부에서의 하잘것없는 나의 수고를 이토록 큰 유익으로 갚아 주신 주님의 섭리를 찬양한다. 너로 인해 오늘날 내 생의 잔은 넘치는구나! 사랑한다. 승호야!



정연희 (집사, 5교구)

정연희 선생님께

2005년이 시작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5월이네요. 시간 참 빠르게 지나가죠?

선생님을 처음 뵈었던 게 중2 때였죠.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네요. 선생님이 처음에 그러셨죠? 나이 많은 선생님이 말아서 실망했을 거라고, 처음에는 열 번 젊은 선생님을 바라보며 부러워도 했죠, 하지만 3주를 넘기지 않던데요. 그랜데 그랬는지, 말도 안 듣고 선생님 속을 꺾이나 썩히드렸죠. 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투덜거리기도 하고, 집도 가가우면서 예배시간엔 매일 늦고, 성경공부하러 갈 땐 항상 없 어지고, 수업할 땐 잠나치고 떠들고, 더 걱정되는 것은 혹시나 말실수로 상처를 남겨 드리지는 않았는지... 이 루 말할 수 없는 사건사고들로 선생님의 흰 머리를 늘려 드린 걸 생각하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눈물로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그 사랑과 기도 덕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저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고행하게 만들었지만 유독 선생님을 더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마 그 때가 2000년 도에 교사로 봉사하여 선생님 소식을 들었을 때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금도 교사로 봉사하시며 저같은 아이들을 지도해주셨으면 했는데, 하지만 한편으론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했습니 다. 저같은 아이 세 명만 만나시면 알아 누우실 것 같아서... 제가 선생님께 정향하고 큰 선물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아주 작은 마음의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래 사시며 부족한 저를 계속 지도해 주세요. 또 속상하시게 하겠지만... 이것이 지금껏 선생님께 말씀 못 드린 제 진심입니다."

김승호 (대학부)

교회 탐방 64 에바다부

주님의 사랑을 작은 손짓에 담아

올해로 17살이 된 에바다부는 이번 주부터 제2교육관 1층으로 강소를 옮겼습니다. 새를 개변한 강소에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며 나아가고 있는 에바다부의 작은 손짓을 들어봅니다.

새로운 장소

새롭게 강소를 옮기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더 많은 농아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농아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민기 (목사, 에바다부 지도)

제2교육관 1층에 위치한 에바다부실은 강소를 빨리 찾을 수 있어 농아인 뿐만 아니라 수화를 배우기 원하는 성도들도 쉽게 오실 수 있어서 좋습니다. 더욱더 많은 농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쓸 것입니다. 김창수 (집사, 교사)

성인반 성경공부 시간에 코이노니아를까지 이용할 수 있어 성경공부를 더 깊이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문성우 (집사, 통역)

에바다부 아동반에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활동하기에 아주 좋아졌어요. 강가일 (집사, 통역)

수화교실

수화교실은 매주 일 3시 15분 ~ 4시 40분까지 에바다부실에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 있습니다. 각 과정은 약 4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을 위해서는 각 개인별로 편차는 있으나 농아인을 사랑하고 열심이 있다면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립니다. 최진원 (집사, 수화통역)

수화를 배우면

각 교구에는 에바다부 성도들이 옮겨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교실에서 조금과정만 배우신다면 그들과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세요! 박복미 (권사, 부강)

수화는 시간언어이기 때문에 수화를 하면 얼굴표정이 아주 밝아집니다. 그래서 더 밝은 열

굴로 주님의 사랑을 전달 수 있었어요. 문성우 (집사, 통역)

농아인들의 귀와 입이 되어 그들과 같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강가일 (집사, 통역)

구역에 농아인이 있다면 구역장님께서 간단한 수화를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6년 전에 저의 집에 구역장님이 찾아오셨는데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제 딸이 방학이라 통역을 해주어서 대화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었거든요. 김창수 (집사, 교사)

수화통역자

현재 6명의 수화통역자들이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매주일 3부 예배와 저녁예배, 그리고 수요2부 예배와 금요집회에서 손사를 정해

돌아가면서 수화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화통역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수화로 통역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연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봉사하실 분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진원 (집사, 통역)

수화통역을 하며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수화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설교를 100% 통역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수화로 모든 설교를 다 전달 수 없지만 성경만큼씩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제 소신을 주장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이 시간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문성우 (집사, 통역)

농아인들의 작은 손짓으로 하는 찬양을 보며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얼굴을 생각하니 무척 기쁩니다. 그리고 저의 작은 연식으로 이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저의 큰 기쁨이 고 싶습니다. 강가일 (집사, 통역)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에서,

더 많은 성도들께서 오셔서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익혀 더 많은 사랑과 교제가 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편진실)

다음 주일 찬송

336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이 찬송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로버트 로우어(Rew. Robert Lowry, 1836~1899)가 작사 작곡한 곡이다.

1절은 사람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 해 동안 주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죄와 방탕함으로 살았다는 내용이야.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갈 때 그 속에는 죄와 사랑이 도사리고 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갔을 때 그가 회개하기 전에 당한 고통과 같다.

후렴은 만이들과 같은 자리에 있는 신자들의 회개 고백이다. 교회를 이루리 오래 다녔고 주님과의 만남 없이는 우리는 결코 참된 믿음의 사랑이 될 수 없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영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

2,3절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며 종자관들만이 저를 십자가를 지셨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그를 배반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했으니 어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인이겠느냐는 내용이다.

4절은 세상에선 선을 악으로 보는 일이 적지 않다. 오늘날 미려한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도 모른다.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공로로 살고 세상을 해할 수 있다. 그런 열정 불순종의 자리를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회개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준다. 그러기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이다. 우리 모두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이 되자.

(찬양위원회)

새·가·목·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377	전근배	19	청년1부	김정재(4)	1398	최선희	9	소망부	이희원(15)
1378	최원백	16	장년2부	임무현(16)	1399	정혜인	19	중동1부	김단웅(14)
1379	한덕자	16	장년3부	임무현(16)	1400	김수정	2	청년2부	김정남(19)
1380	심대우	15	장년3부	성대열(16)	1401	이종구	1	장년2부	조성수(5)
1381	조옥선	15	장년3부	이정연(16)	1402	양세진	19	대학부	송문자(8)
1382	김진영	6	청년2부	최숙재(6)	1403	김덕산	4	장년2부	왕은식(5)
1383	양정선	19	청년1부	김진영(11)	1404	유혜남	1	청년1부	
1384	윤진미	19	대학부	박은숙(6)	1405	김준현	19	청년1부	
1385	송명희	9	장년1부	정승진(16)	1406	이혜경	19	청년1부	김영재(2)
1386	유준희	17	장년2부	이동배(16)	1407	송진희	11	청년2부	송정순(9)
1387	조의영	16	장년2부	김경섭(16)	1408	한승인	19	대학부	이옥자(4)
1388	박성우	19	청년1부	김태욱(6)	1409	김단비	19	중동3부	강주원(9)
1389	현은성	19	청년1부	김박순(9)	1410	임실자	1	소망부	조귀남(9)
1390	안서영	1	청년1부	윤선한(1)	1411	문민남	16	청년1부	김영희(16)
1391	홍민지	10	소망부	조식구(6)	1412	박현식	8	장년2부	김순림(9)
1392	박말	19	외산부	지르길(19)	1413	김해희	19	청년1부	김창식(12)
1393	신우희범	19	고등부	오동환(5)	1414	박영순	15	장년2부	조태현(10)
1394	손수빈	19	고등부	오동환(5)	1415	신현우	19	대학부	이태식(10)
1395	김혜진	18	장년3부	조정숙(17)	1416	전혜원	19	청년1부	윤순미(14)
1396	임효정	1	청년1부	최근준(2)	1417	박재희	15	청년1부	김순희(8)
1397	박민형	19	청년1부	박근에(19)					

※ 찬송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결론

1. 이형민군 (이상선 집사, 학두원 관사의 아들, 5교구)과 김태연양 (김기생 씨, 김복동 씨의 딸, 19교구) / 21일(토) 1300 신랑동 런던웨딩드레스 1층 예매할드름

2. 김인규 군 (김해성 성도, 박순녀 성도의 아들, 8교구)과 김지영 양 (김진자 씨의 딸, 19교구) / 21일(토) 1300 역삼동 상록회관

3. 이석현 군 (이안국 집사, 강명숙 집사의 아들, 14교구)과 이소영 양 (이영란 씨, 권권수 씨의 딸) / 21일(토) 1800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 하오나볼룸

장소 변경 안내

사백예배및 수요일 20예배 (17~20)
5월 17일(화)부터 20일(금)까지 본당 강대상 천정수리로 인하여 새벽예배 및 18일 수요일 12부 예배는 갈릴리움에서 드리고 20일 금요일에는 중전로에서 본당에서 드립니다. 착오없이 기 바랍니다.

◆ 장년부 초청 전도전지

주제 : "의로운 길에 생명이 죽은 영혼 구원하기"
일시 : 5월 15일(오늘) 오후 12:00~14:00
장소 : 제2교육관 201호

◆ 소랑부 총동원 및 새가족 초청집회(가족 포함)

일시 : 5월 15일(오늘) 12:00
장소 : 갈릴리움

◆ 단가신교당 방문

일시 : 6월 1일(수)까지 매주 수요일 2부 예배후
장소 : 본당 112호
(*마주교자는 이번 차수에 전원 수감바랍니다)

◆ 2005년 의료선교의 날

일시 : 5월 22일(다음주일) 10:00~16:40
장소 : 제2교육관 3층(교동부실)
주 관 : 의료선교부, 의선부,
한국 한센복지협회 서울지부
대상 : 국내 거주 외국인
진료과목 : 흉부X선 촬영, 피부질환,
혈액검사(빈혈, 간기능·혈당),
전립선 질환(간접검사 등),
소변검사(노당 등), 외과, 내과,
비뇨기과

◆ 교사양성부·수요성경부 종강예배 안내

일시 : 5월 22일(다음주일) 오후 3:45
장소 : 베다니홀
내용 : 예배 및 수료식

◆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주변 전도일)

일시 : 5월 18일(수) 오전 11:00
대상 : 전 교인 (교구별 어전도회 중심)
진행 : ① 수요1부 예배 (갈릴리움)
② 교구별 영성훈련
③ 어전도회 차례회
④ 교회주변 전도 실시

직원 모집

- 1.모임부원 경비직
- 2.모임원 약간명
- 3.자 격 세례교인 (만 55세 이하)
- 4.재능서부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추천서 (타교인)
- 5.서류제출서 주소지 강남구 역삼동 665-1 중현교회 사무국 ☎ 552-8200 (#403)

이번 주 새벽기도회 담당

	16(월)	17(화)	18(수)	19(목)	20(금)	21(토)	22(주일)
설교자/기도자	안창덕/최지우	이성진/문홍무	정진호/최경하	김용덕/이희우	고광환/김현철	김익환/강덕필	윤수일/최문실

예배담당 안내 (5/18-5/22)

날짜	예배	찬양	시 기도	설교
5/18	수요 I	이눔에 아무 중가 아니바오도 (호산나 찬양대)	류병희	손경태
5/18	수요 II	내 맘이 낙심되네 (설교대 찬양대)	이창훈	이소규
5/20	금요집회	플루트 김용성/프코라노 조혜민/만도린 연주대	류병희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 (요한 5:1-12) 장재웅 목사
5/22	주일 I	(예배 전 찬양)	이재영	김구형
5/22	주일 II	산자되기 원합니다 외/말바누엘 남성중창단	임현덕	김단용
5/22	주일 III	나가난 복자 가난 성애외/프코라노 조혜민/가브리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김용덕	정태두
5/22	주일 IV	만영의 왕 네 주께서 외/아래 남성중창단	이희식	정선원
5/22	주일 V	내 주의 보혈은 외/별명 오케스트라	안치원	이계인
5/22	주일찬양	브니엘 여성중창단/호산나 찬양대	최성규	유상태

예배 및 집회 안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00와외/동시통역(예배)	본당
V	오전 3: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찬양예배	오전 5:00	본당
수요예배	1 오전 11:00 2 오전 7:30	본당
금요집회	오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기도원 안내

집회	시간	차량
화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오후 11:00	금요집회 후 본당 앞 출발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I 오전 9:00 II 오전 11:00	선교관 1층
유아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등 1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등 2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등 3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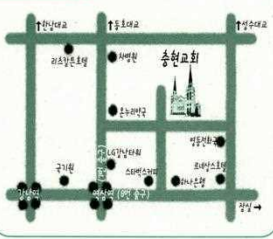
구분	시간	장소
청년 2부	오후 12:00	제2교육관 2층
장년 1부	오후 12:30	교육관 507호
장년 2부	오후 12:30	교육관 407호
장년 3부	오후 12:30	교육관 307호
소망부	오후 12:30	갈릴리움
사망부	오후 11:00	복지관 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새가족종교부	오후 12:15	베다니홀
총원외원집회	주간교육	교육관 107호
장년장년외원	주간교육	총원복지관
기타	오전 11:00	아덴 홀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3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회.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benezer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i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Ebenezer O'clock Worship Service.

5월 총현기도의 창

- 1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십자가 복음의 포로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권을 주소서.
- 2 총현의 모든 청지기와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깨어지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 3 2005년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주소서.
- 4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실시되는 교회주변 전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소서.
-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로에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 6 모든 새가족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소서.
- 7 수요성경부,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전도대원훈련을 통해서 총현의 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 8 5대 목표의 하나인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세워진 총원복지관이 십자가 복음으로 운영되게 하소서.

교회오시는길



심·기·는·본·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 김기철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 김영철 이훈 남한우 김경길 김용구
- 최두길 이창호 차선득 장광남 이종석
- 안종욱 임두원 이갑재 권종용 권종필
- 이정우 김단용 황영일 한승규 강인규
- 김한기 원용철 이형수 안동현 황찬만
- 김영국 최원득 이계인 박두양 이대식
- 장태두 박용규 권명옥 조종환 배준식
- 김영달 이일호 최지훈 노영한 박철규
- 정정길 신상수 고재술 강현형 김영은
- 이달옥 장철환 김승곤 함철주 윤서민
- 정선원 안석현 김연근 강창국 강준성
- 김영곤 장승규 전태복 석영식 구재환
- 송두섭

■ 부목사

-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희 김영훈
- 여국근 안창덕 나광영 정진호 김용덕
- 고광환 위건광 김익환 장훈 임현덕
-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치원 황종선
- 양재용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재영
- 이경준 이창수 김준호 윤수일 황진섭
- 정성영 이경훈 김태서 김성훈
- 정원희 신동자 윤운관 한영준 김연식
- 홍순애 이옥주 김갑자 안태준 김정연
- 조옥자 강덕필 최보남 권은희 김영준
- 김정자 이수경 김경희 이복춘 류진희
- 한성진 임태주
- 찬양감독 강인규 ■ 전임지휘자 서순성
- 전임종무자 김소연
- 선교서요한